**마0315 Note**

**차례**

**용어: 의(義), 법적 깨끗함**

영어 righteous, righteousness의 의미

사전에서 찾아본 히브리어 ‘체다카’, 헬라어 ‘디카이오쉬네’의 의미

호크마 주석에서 살펴본 ‘체다카’의 의미

인터넷 자료

**용어: 칭의(법적으로 깨끗하다고 여기다)**

**◆ 용어: 의(義), 법적 깨끗함**

창1506. 이에 그가 여호와 안에서 믿으니라(신뢰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법적 깨끗함 [쩨다카, 체다카:(짜다크: 도덕적 또는 법정적 의미에서 올바르다,올바르게 만들다,께끗케 하다,정결하다)에서 유래, 의로움,정직,공의,덕,번영,알맞게,의로운]'으로 여기시니라(계산하시니라).

합0204. 보라, 부풀려져 있는 그의 혼은 자신 안에서 똑바르지 않느니라, 그러나 적법한[짜디크, 차디크: (짜다크: 도덕적 또는 법정적 의미에서 올바르다, 올바르게 만들다, 깨끗케 하다,정결하다)에서 유래, 공정한, 합법적인, 의로운]자는 그의 믿음에 의해 사느니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각종 용어의 문제로 번민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의(義), 의로움, 의인, 이것에 대한 용어선택도 그 중에 하나이며, 한 두번 고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義:옳을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의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우리의 사고감각에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며, 또한 의(義)의 개념이 유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풍겨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볼 때에, 하나님과 그리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부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영어 righteous, righteousness의 의미**

righteous [ráitʃəs] a. ①, 정직한; 염직(廉直)한; 공정한, 정의의. ② 정당한, 당연한. ③ (the ∼) 「명사적」 정의의 인사.

right·eous － adj. <文> 1 옳은, 정당한, 공정한, 정의의. ㆍ ∼ behavior 올바른 태도. 2 당연한, 마땅한, 이치에 맞는. ㆍ a ∼ plan 마땅한 계획. 3 고결한, 정직한, 덕망있는. ㆍ a ∼ and good man 고결하고 선량한 사람.n. <the ∼> <복수 취급> 고결한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right·eous·ness n. [Ｕ] 1 정직, 고결; 고결[정직]한 행위. 2 공정, 정의.

‘정당한, 정당성, 정의’, 이 정도의 의미죠,

1. **사전에서 찾아본 히브리어 ‘체다카’, 헬라어 ‘디카이오쉬네’의 의미**

6666 hq;d:x] 쩨다카 ts@daqah {tsed-aw-kaw'}

6663(짜다크)에서 유래; (추상적으로); ‘의(義)로움’, 주관적으로(‘정직’), 객관적으로 ‘공의(公義)’, 도덕적으로 ‘덕(德)’, 상징적으로(‘번영’): 공의, 알맞게, 의로운(의롭게, 의로움, 의롭게 행함) <창15:6,18:19,30:33,신6:25,9:4,5,6,욥33:26,시5:8,11:7,31:1,36:6,외 구약157회>

1343 dikaiosuvnh 디카이오쉬네(dikaiosune)

1342(디카이오스)에서 유래; (성격이나 행위에) ‘공정(公正)’

, 특히(기독교인의) ‘칭의(稱義)’. 여성명사. righteousness; <마3:15,5:6,요16;8;롬10:3,14:17,고후9:10,갈3:6,21,빌1:11,3:6,9,딤전6;11,딤후3:16,4:8,히7:2,12:11,벧후1:1,요일3:4,외 신약93회>

1. **호크마 주석에서 살펴본 ‘체다카’의 의미**

1)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합법적이며 깨끗함(법, 도덕,깨끗함,합법적임 등의 의미를 담고있는 바, 요약하면 '법적으로 깨끗함')

법에 일치하는 행위, 종교적 도덕적 또는 법적인 의로움, 법정적 의미의 합법적인 자, 사법적 의미의 깨끗함,

여호와의 규범과 표준에 맞추어 바르게 행하는 것, 종교적, 도덕적 의미에서의 올바름, 도덕적, 법적 의미에서의 깨끗함

2)바르다,곧다,정상적인 것,바른 것,공정함,정직,

3)하나님의 품성,속성

4)권리, 판단력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합법적이며 깨끗함”을 의미함

호크마 주석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성 경: [신9:5]주제1: [패역했던 이스라엘]주제2: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성]

▶ 의로움 - 원어 '체다카'(\*)는 도덕적이고 사법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깨끗한 것을 가리킨다.

성 경: [삼하8:15]주제1: [다윗의 정복 사업과 조각(組閣)]주제2: [다윗의 내각(內閣)]

▶ 공과 의를 행할 새 - '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다.

또한 '의'에 해당하는 '체다카'(\*)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의미한다.

성 경: [대상18:14]주제1: [다윗 왕이 성취한 초기의 승리]주제2: [다윗의 내각(內閣)]

▶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 새 - 여기서 다윗 왕이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는 말은 그가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관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이다. '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스파트'(\*)는 '재판'을, '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다카'(\*)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서 이는 율법에 따라 행한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다윗 왕은 백성들과 직접 만나 재판장의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던 것이다.

성 경: [시72:1]주제1: [이상적 통치에 대한 간구와 기원]주제2: [도래할 메시야 왕국을 찬양]

▶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 여기서 '의'(\*, 체다카)는 본 문구가 앞 문구와 동의적(同意的) 대구(對句)라는 점에서 앞의 '판단력'과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주들에게는 공평한 통치가 율법에 의해서 특별히 명령이 되었다(출 23:3,6)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단어는 '율법의 기준에 부합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폭넓은 뜻을 아울러 시사한다(Kidner).

성 경: [시103:17]주제1: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주제2: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 의(\*, 체데크) -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하기로 결심한 두 상대의 관계성을 암시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쓰인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용어는 '건져냄(구원)'(22:31; 40:9; 51:14; 65:5; 69:27). '승리'(사 41:2), '변호'(103:6), '의로운 도움'(71:24) 그리고 '상급'(106:31) 등과 관련한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악인에게 내리는 징벌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한다(119:75). 그리고 본절의 문맥에서는 언약에 명기된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성을 의미한다.

성 경: [시119:121]

▶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 ‘공과 의’란 각각 ‘미쉬파느’(\*)와 ‘체데크’(\*) 인데

이들은 공히 율법과 연관성이 있는 용어들이다. 말하자면 저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 경: [잠2:9]주제1: [지혜의 도덕적인 유익성에 대한 언급]주제2: [지혜를 구하는 자의 유익]

여기서 '공의'(\*, 체데크)는 '바르다', '곧다'란 의미의 어근에서 파생된 말로 도덕적 의미에서의 올바름을 가리키며(Gesenius),

공평'(\*, 미쉬파트)은 '맞추다', '판별하다'란 뜻의 어근 '솨파트'(\*)에서 유래된 말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한다.

성 경: [잠8:8]주제1: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 주제2: [지혜의 탁월함]

▶ 의로운즉 - 원어 '체데크'(\*)는 '곧다'라는 뜻의 어근 '차다크'(\*)에서 파생된 말로 여기서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올바름을 가리킨다(시 15:2;사 45:23).

성 경: [잠10:2]주제1: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 차이점]주제2: [의인의 삶]

▶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 '의리'(\*, 체다카)는 문자적으로 단순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의로움'(2:9)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그 문맥상의 의미로 보아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재물로 남을 구제하는 것을 뜻한다(Delizsch). 따라서 본 문구는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응을 가져오게

성 경: [잠12:5]주제1: [의인과 악인의 특징]주제2: [의인과 악인의 특징]

의인의 생각은 공직(公直)하여도 - '의인'(\*, 체디킴)은 원어상 도덕적, 법정적 의미에서의 '공정한 자', 합법적인 자'란 뜻으로 모든 언행의 근거가 되는 의인의 내적 면모가 세상적 기준에서도 극히 올바르고 타당…

성 경: [잠16:8]주제1: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주제2: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여호와]

▶ 의, 불의 - 여기서 '의'(\*, 체데크)는 '(도덕적, 법적 의미에서의) 깨끗함'을 가리키며, '불의'(\*, 벧로 미쉬파트)는 문자적으로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가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 규례의 준수 여부에 있어서의 의, 불의의 개념마저 시사하고 있다.

성 경: [렘22:3]주제1: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주제2: [악한 왕들에 대한 경고]

'미쉬파트'는 사사나 왕들이 시행하여야 할 언약 율법과 규례와 관련하여 주로 쓰였고,

'체다카'는 여호와의 규범과 표준에 맞추어 바르게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성 경: [겔18:5]주제1: [책임과 회개]주제2: [개인적 범죄와 심판]

▶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 '법'은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인데, '법적으로 선언된 판결' 또는 '선언된 법'의 뜻을 갖는다. 이 말에는 법적인 구속력(拘束力)이 강조되어져 있다.

한편 '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다카'(\*)는 '(법적 또는 도덕적인) 의로움'의 뜻을 갖는다.

이 말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을 뜻한다.

여기서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 경: [겔33:14]주제1: [선지자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상태]주제2: [회개의 촉구]

▶ 법과 의대로 행하여 - 여기서 '법'(\*, 미쉬파트)은 종교적, 도덕적, 법률적 의미에서의 정의를 가리키며

'의'(\*, 체다카)는 종교적, 도덕적 의미에서의 올바름(right, NIV)을 각각 가리킨다.

따라서 '법과 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의롭고 올바른 내적, 외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이다(18:5). 이런 점에서 본 구절은 '돌이켜 자신의 죄에서 떠나서'라는 앞 구절과 함께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죄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격의 회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임을 재삼 주지시킨다.

성 경: [왕상10:9]주제1: [절정기의 솔로몬 왕조]주제2: [회복을 비는 마지막 간구]

▶ 공과 의 - 한편 '의'(義)에 해당하는 '체다카'(\*)는 '의로움','정직'을 의미한다(신 6:25; 33:21; 시22:31; 36:10; 사 33:15등). '미쉬파트'가 법(法)과 같이 좀 형식적인 면에 관련있다면, '체다카'는 윤리(倫理)와 같은 보다 내용적인 면에 관여한다 하겠다.

성 경: [시111:3]주제1: [위대한 하나님의 행사]주제2: [찬양받으실 지존자]

한편, '의'에 해당하는 '체데크'(\*)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이고 바른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성 경: [시112:3]주제1: [의인의 복]주제2: [의인이 누릴 지복한 삶]

여기서 '의'에 해당하는 '체데크'(\*)는 '공정함', '의로움', '바르게 함' 등의 뜻을 내포한다.

이 말이 111:3에서는 여호와의 성품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 19:15).

성 경: [시36:6]주제1: [하나님의 인자와 악인의 패역]주제2: [여호와의 인자하심]

▶ 의 (\*, 체데크) - 어원이나 문맥상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이다.그래서 율법, 섭리 집행, 죄로부터의 인간 구원, 율법을 따른 우주에 대한 상벌(賞罰)의 집행 등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평, 정의로 번역함이 옳다(31:1 ; 33:5,Barnes).

성 경: [호2:19]

▶ 의와 공변됨 -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결혼에 대한 지참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의'(\*, 체데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주관적이고 내적인 공의를 가리킨다.

공변됨'(\*, 미쉬파트)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말한다. 이 두가지는 법률적, 도덕적인 정의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에 담긴 영원한 공의와 심판을 포함한다.

성 경: [사45:13]주제1: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주제2: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

여기 '의'(\*, 체데크)는 그 의미를 쉽게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문맥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 그러나 구원과 연관성을 가질 때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죄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없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연상해야만 한다.

성 경: [시40:10]주제1: [감사 찬송과 간구]주제2: [구원하심을 찬양]

▶ 의 - 이것의 히브리어 '체데크'(\*)는 구약 용어들 가운데 가장 해석하 어려운 용어 중의 하나인데 그 이유는 여러 차례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116회 등 장). 따라서 그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떤 학자는 본 시편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선포로부터 출발되는 사실을 중시하여 '구원하시는 도움'으로 이 단어를 번역한다(Anderson). 또 다른 학자는 이를 '인간을 의롭게 하는 신적인방법'으로 해석한다.

이 방법이란 '칭의'(秤義)를 가리키는데 이 해석의 경우 롬 1:17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Ba-rnes). 그런데 만일 이 해석을 따른다면 본장 1절의 구원 사실은 바로 불신앙 상태로부터 신앙의 상태로의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본 시편은 다윗의 것으로 그는 이 시편을 기록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자의 번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성 경: [느2:20]주제1: [느헤미야의 귀환]주제2: [성읍 중건을 촉구하는 느헤미야]

한편, '권리'(\*, 체다카)는 행정 구역으로서의 유다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법적 권리를 가리킨다(Williamson, Fensham).

1. **인터넷 자료**

인터넷에서 찾아다녀 보니까, 다음의 것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싣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의'와 '의롭다 하다'라는 낱말은 원래 법정적(法廷的, forensic) 용어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신 25:1).   
"옳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그른 사람에게 유죄를...."(공)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해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왕상 8:32).   
"(6.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겠노라"(출23:7).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의를 빼앗는 도다" (사5:23). "뇌물에 눈이 어두워 죄인을 옳다 하고 옳은 사람을 죄 있다 하는 자들아!"(공)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잠17:15).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시 82:3). maintain the right of the lowly and the destitute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 지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사 50:8).   
"내가 여호와께 범죄 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 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미 7:9).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삼하 15:4).   
"소송할 일이 있어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앞에 와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오."(공) I would give them justice.(NRSV)

다음은 디카이오쉬네'(義) 차례인데, 이는 히브리어 ‘체데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임으로, 별로 비중을 두고싶지 않으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명사 디카이오쉬네(dikaiosyne:; 쉬네[syne:]는 추상적 개념을 가리킴)는 후기 어형이다(Theognis 1, 47이후 출현: 엔 데 디카이오쉬네 쉴레브덴 파사 아레테 에스틴[en de dikaiosyne: sylle:bde:n pasa arete: estin]).   
한편으로 이 단어는 의로운 사람의 특질을 가리키지만[디카이오쉬네,디카스티케 (dikaiosyne: dikastike)는 법에 준한 의를 뜻함]   
또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재판관이 지지해야 하는(p.3-140\*) 표준이 되었으며 재판관은 줄곧 이를 회복시키는데 자기의 목표를두어야 했다.

이에 따라 디카이오스(dikaios)는, 존재적? 정적(static). 사회적 질서에 순응함과 아울러 법에 대하여 의롭다는 뜻이었다.

이 단어는 “(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중성명사로 널리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에서다:   
토 디카이온 토 노미콘 카이 토 이손(to dikaion to nomikon kai to ison, Aristotle, Eth. Nic. 1129a, 34); 우덴 톤 디카이온 포이에인 티니(ouden to:n dikaio:n poiein tini: 누군가에게 올바른 일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즉 누군가를 부당하게 취급한다는 뜻); 타 디카이아 람바네인(ta dikaia lambanein: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  
 따라서 토 디카이온(to dikaion)은 법적 권리 주장을 의미하게 되며, 한편 타 프로스 알렐루스 디카이아(to pros alle:lous dikaia)는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들과 임무들을 의미한다.

◆결론

수십차례 번민 끝에

종합적으로 분별하여 볼 때에,

의(義)란

심판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뭔가 기준이 되는 표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각종의 계율들이며, 의(義)는 바로 그 주신

계율들에 작합한가,부합되는가의 적법성,합법성 즉 ‘법적 깨끗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저는 번역을 계속해야 하며, 이 어려운 난제는 학자들의 손에

넘깁니다.

**◆용어 : 칭의(법적으로 깨끗하다고 여기다,부르다)**

칭의는 다른 말로 의인(義認)이라고도 하는데,

이 칭의는 ‘사면,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칭의는 실제적인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죄에 대한 사면이요, 용서함이며, 법정 선언적인 것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다,

무죄하다고 선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타락 이전의 상태로 정상화되는 것이다.

이는 관계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의인에 대해 웨슬리는 그의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성경적인 명백한 견해는 사면이요, 죄의 용서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피로 인한 화해의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은 우리의 모

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롬3;25)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용서’와 같은 말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다.

이 구원이 우리를 위해 취하는 값은(일반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이다.

곧 이 값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다 쏟는 데까지(사52;12) 행하셨고, 고통을 당하신 모든 것이다.

웨슬리는 칭의를 바로 죄의 용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전가되고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인간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믿음이 의롭다 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칭의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동시에 반드시 회개, 곧 참회의 과정

이 수반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의는 화해를 낳으며, 또 화해는 하나님의 가족에로의 입양을 낳아 중생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중생 그리고 양자됨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단지 관계적 변화를 의미하며,

신생은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외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후자는 우리 영혼의 깊은 속을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전자는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

후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는 죄책을 제거하는 일이요,

후자는 그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한 객관적 은총, 법적 은총(legal grace)이라

면, 거듭남은 주관적 체험, 내적 체험인 것이다.

인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면서 흑암 주관권에서 하늘 주관권으로 옮겨 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한다.

의인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의인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인간의 참된 믿음'이 있다.

존 스토트;

칭의는 법정에서 빌려온 법적 용어, 곧 전문용어이다.

이 말은 그 반대말인 ‘정죄’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구약의 재판관은 죄 없는 자를 죄 없다 하고, 악한 자를 죄 있다 하도록 지시를 받

았었다.